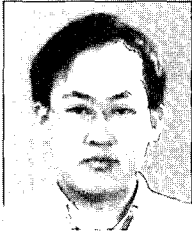


S - 1

Atraumatic abutment Preparation



이 양 진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조교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병원 치과보철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전공 석사 및 박사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조교수

지대치 형성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빈번히 행하고 있는 상실치 수복의 첫 과정이다. 그러나 지대치 삭제의 범위와 정도, 방법에 따라 수복물의 형태와 색조, 수명이 크게 차이가 나며 치아 자체의 수명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사실상 수복물의 성패를 좌우하는 술식이다. 관혈적 손상이 없는 경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대치 삭제의 중요성은 흔히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치수와 상아질을 하나의 연결단위로 보는 점, 치아를 치조골과 치은이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 지대치 형성을 기계적으로만 평가하는 점은 잘못이다.

본 연재에서는 의원성 손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지대치 형성과정 중 일어나는 치주조직 손상, 치수 손상, 인접치 손상과 관련된 원인을 살펴보고 손상정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와 방법을 전반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대치 형성시 변연설정에 가장 주의할 부분은 생물학적 폭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결체조직과 접합상피가 파괴되면 만성염증이 일어나며 치조골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치은은 순설면과 치간유두부의 치은 열구 깊이가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은연하 변연 형성이 많은 현대의 심미수복 추세에서 자칫 치주조직의 손상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술자는 이를 고려한 입체적인 형성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치

주형태와 연령, 치근노출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함요와 flute를 형성해야 한다.

삭제 후 환자가 가장 많은 증상을 호소하는 부분은 치아과민성이다. 이것은 치아 삭제 중 생기는 열 손상과 기계적 진동, smear layer안의 세균 침투와 상아세관액의 건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핸드피스와 버를 사용하여 치아 형태를 고려한 최소한의 삭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술자의 세심한 삭제기술과 치아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절한 삭제에도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상아세관의 액체 이동에 의한 통증과 세균의 침투 때문인데 특히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치수노출의 경우는 적절한 접착치과학의 적용이 꼭 필요하다. 지대치 형성이 끝난 후 후처리 과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접치아에 대한 손상도 결국은 치아 우식, 식편압입으로 이어져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접치 손상을 줄이기 위한 형성방법은 너무나도 당연히 인접치에서 가능한 버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다. 앞서의 모든 경우가 자주 일어남에도 흔히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형성전 단계와 형성중, 형성후로 나누어 주의점을 짚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